

# 홍어장수 문순득의 표류기, 『표해시말』

유배 온 실학자와 섬주민의 경험이 만든 위대한 기록

글, 최성환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표해시말』이 담긴 『유암총서』 원본 표지

표류(漂流)는 주로 자연풍파에 의해 배가 본래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표류를 경험하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거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섬사람들은 언제나 표류라고 하는 재난사고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표류는 대부분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였지만, 해외여행과 사적인 대외 무역이 금지되었던 당시 사회에서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숨통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타국에서 표류인이 겪은 이색적인 체험담은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거리가 되었고, 간혹 어떤 이의 경험은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겨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흔히 ‘표류기(漂流記)’ 혹은 ‘표해록(漂海錄)’이라고 한다. 표류기에는 당대 국내의 사회상과 섬사람들의 문화상, 표류인이 경험한 외국의 생활 문화, 조선과 타국의 국제관계 등 생생한 정보들이 담겨있다. 국내의 표류기 가운데는 최부(崔溥)의 『표해록』, 장한철(張漢喆)의 『표해록』 등이 널리 알려져 왔으며, 현재 최두찬

(崔斗燦)·풍계대사(楓溪大師) 등과 관련 된 20여 종의 표류기록이 전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신해양시대를 맞아 최근에 더 주목되고 있는 흥미로운 기록 중 하나가 조선 후기 문순득(文淳得, 1777~1847)의 표류경험이 담긴 『표해시말(漂海始末)』이다.



01 신안군 우이도 전경(사진제공 : 신안군)

## ● 우이도 홍어장수 문순득의 표류

문순득은 우이도(牛耳島, 현 전남 신안군)에 살던 평범한 상인이었다. 우이도는 목포시와 64.9 km 떨어진 거리의 해상에 있으며, 연안과 원해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해당한다. 그는 우이도가 지닌 지리적 특징을 활용하여 보다 먼 바다에 자리한 대흑산도권에서 홍어와 같은 현지 특산품을 구입해 영산포 등 영산강 내륙을 오가며 팔던 일종의 중개무역을 하던 인물이었다. 문순득의 나이 25살 때인 1801년 12월에 흑산도 인근으로 홍어를 구하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를 경험하게 되었다.

문순득의 표류의 특징은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는 점이다. 표류 후 처음 표착한 곳은 류큐(琉球, 현재 일본 가고시마 현과 오키나와 현에 속한 섬 지역)였다. 이곳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풍랑을 만나 이번에는 여송(呂宋, 필리핀 북부)에 표착했다. 다시 필리핀에서 중국 광둥 지역의 마카오로 이동하였고, 중국 대륙을 횡단하여 베이징을 거쳐 조선으로 돌아왔다. 1805년 1월 8일 우이도로 귀향하기까지 약 3년 2개월이 소요되었다. 조선인 가운데 가장 긴 시간, 장거리를 표류한 인물이다. 동시대에 여러 지역과 국가를 체험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희귀한 사례이며, 그만큼 당대의 문화상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표류기로 유명한 최부나 장한철이 관료이자 학자였고, 특수한 상황에서 배를 탔다가 표류한 것



에 반해 문순득은 1년 내내 배를 타고 다니던 홍어상인이었다는 점에서 표류기에 남겨진 내용도 차별화 된 특징들이 많다.

### ● 유배인 정약전을 통해 기록된 『표해시말』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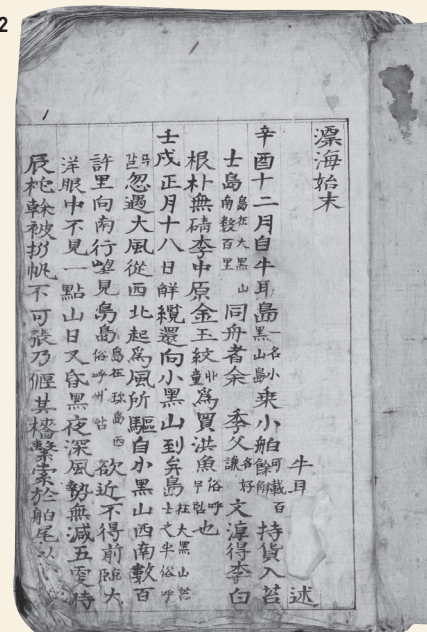
문순득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우이도에는 정약전이라는 학자가 유배와 있었다. 우이도는 조선 후기 호족산도로 불리며, 흑산도에 정배된 유배인들이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약전은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배되어 왔다. 문순득은 자신의 표류경험을 실학자였던 정약전에게 들려주었고, 정약전은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표해시말(漂海始末)』을 저술하였다. 『표해시말』의 전체 체제는 크게 3부로 구분된다. 1부는 ‘표류의 노정’에 해당한다. 일기체적 구성법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처음 출항하여 표류하게 된 경과와 귀국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지명에 대한 부분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2부는 표류한 지역에 대한 풍토기(風土記)로 구성되어 있다. ‘풍속, 궁실(집), 의복, 해박, 토산’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류큐와 여송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3부는 조선어와 류큐어, 여송어를 비교한 112개의 단어를 기록해 놓았다. 문순득의 표류기록이 다른 기록과 가장 크게 차이는 나는 점은 언어표를 별도로 기록해 두었다는 점이다. 실학자인 정약전을 통해 집필되었기 때문에 다른 표류기에 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기록 된 주요 내용들이 각국의 생활문화 중심이라는 점이다. 문순득이 한 지역에 장기적으로 체류함으로써 실질적인 경험에 입각한 견문 내용들이 많다. 최부나 장한철의 경우는 전체적인 표류기간도 짧았고, 한 지역에서 오래 체류하는 경우가 없이 계속 이동을 하였다. 그러나 문순득은 만 3년 2개월을 표류했고, 한 지역에서 최소한 몇 개월씩 체류하였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현 오키나와 지역의 장례문화, 신분별 전통 의상, 닭싸움을 좋아하는 필리핀 사람들의 생활상, 종교, 가옥구조, 국제무역을 하는 큰 배에 대한 묘사까지 어느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가득하다.

아쉽게도 정약전이 집필한 『표해시말』의 원본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우이도에 전해온 『유암총서(柳菴叢書)』라는 책에 그 원문이 필사되어 있어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유암총서』는 정약용의 제자였던 이강회(李綱會)가 1818년~1819년 사이 우이도에 머물면서 집필한 문집이다. 1권 1책으로 48장 분량이며, 크기는 가로 15.5cm, 세로 24cm이다. 문집에는 정약전이 저술한 『표해시말』이 서두에 실려 있고, 이강회의 저술로 선박제조에 관한 국내 최초의 연구서로 평가받고 있는 「운곡선설(雲谷船說)」과 이용후생의 정신에 입각하여 수레를 만들어 보급할 것을 주장한 「차설답객난(車說答客難)」, 「제차설(諸車說)」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유암총서』는 우이도 남평문씨 문중에 전해오다가 최근 신안군에 원본이 기증되었다.

02



02 문순득의 표류경험을 정약전이 기록한 『표해시말』

### ● 서양문화를 경험한 최초의 조선인, ‘천초(天初)’

문순득의 표류가 특별한 이유는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서양문화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가 표류한 지역은 영역상 동남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당시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만든 국제항이었다. 서양문화가 진출해 있는 특수지역에 머물면서, 조선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를 목격하고 경험하였다.

문순득이 표류한 시기는 19세기 초였다. 당시 조선은 사적으로 서양문물을 유입하거나 외국과 무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특히 천주교의 경우는 철저히 탄압받고 있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문순득은 천주교 성당에도 가보고, 국제무역선을 타고 항해하는 등 표류기간 중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약전은 문순득에게 ‘천초(天初)’라는 별칭을 지어주었다. 이는 “세상에서 너가 처음”이라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하여 『표해시말』의 기록 중 백미는 여송(呂宋)지역 건축물 ‘신묘(神廟)’를 소개하는 장면이다. 본문에는 신묘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신묘는 30~40칸의 긴 집으로 비할 곳 없이 크고 아름다웠으며 이로써 신을 모시는 대증을 대접하였다. 신상을 모셔 놓았다. 신묘 한쪽 꼭대기 앞에 탑을 세우고 탑 꼭대기에 금계(金鷄)를 세워 바람에 따라 머리가 바람이 오는 방향으로 스스로 돌게 하였다. 탑 꼭대기 아래 벽의 밖으로 크기가 같지 않은 종 4~5개를 걸어 제사와 기도 등 일에 따라서 다른 종을 친다.

신묘는 천주교 성당을 의미한다. 당시 필리핀은 이미 스페인의 천주교 문화가 보급되어 있었다. 이는 문순득이 필리핀에서 경험한 천주교 성당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표해시말』에는 수도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

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 문순득이 단순히 성당건물을 한번 구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표류기간 동안 성당을 다녔을 가망성도 높다. 당시 식자층에게 최부의 『표해록』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표류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평범한 홍어상인인 문순득에게 ‘천초’라는 파격적인 호(號)를 준 것은 바로 이러한 독특한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성당 기록을 통해 당시 문순득이 필리핀의 현 일로코스 비간 지역에 체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순득이 경험한 이 성당의 이름은 성 바오르 성당(st. paul metropolitan cathedral)으로 현 비간 시청 옆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금도 성당으로 이용되고 있다.

66

평범한 홍어상인인  
문순득에게 ‘천초’라는  
파격적인 호(號)를 준 것은  
바로 이러한 독특한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99



03 문순득이 『표해시말』에서 묘사한 필리핀 비간의 천주교 성당 현재 모습



## ● 홍어장수의 눈에 비친 해양문화와 그 영향

문순득은 이름 있는 학자는 아니었지만,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 특히 거친 바다를 무대로 살아온 홍어장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해양문화나 상업 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때문에 그의 경험담에는 다른 학자들이 남긴 표류기와는 달리 민중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풍속에 대한 내용이 많고, 어민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선박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선박에 대한 기록과 그 상세함은 본래부터 선박에 능통한 문순득이 아니었다면 결코 기록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문순득은 언어에도 매우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와 관련된 일화가 남아 있다. 당시 제주도에 필리핀 사람들이 표류해 왔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무려 9년 동안이나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순득이 다년간의 표류 경험을 통해 외국의 언어를 잘 알고 있다는 소문이 조정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문순득의 도움으로 그들이 필리핀 선원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문순득은 당시 조선에서 유일하게 필리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셈이었다. 이때는 문순득이 표류해서 돌아온 지 5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아마도 절박한 상황에서 익힌 외국어였기 때문에 더욱 오래 기억에 남았을 것이다.

한편 문순득은 표류기간 중 경험한 외국의 국제무역상 황에 대한 부러움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표해시말』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라

중국·베트남·필리핀 사람들이 서로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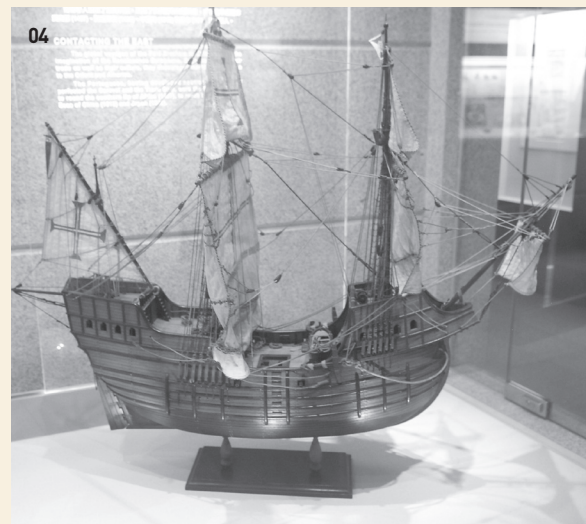
살며, 짝을 지어 장사를 하는 것이

한 나라나 다름이 없다. 하물며 베트남과

마카오는 서로 그리 멀지 않고, 함께 배를 타고

함께 장사를 하니 이상한 일이 아니다.

표류경험을 통해 일개 홍어장수였던 문순득의 해양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유배인 정약전과의 만남을 계기로 하여 그와 관련이 있는 여러 실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당시 전라남도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정약용의 경우, 그의 저서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문순득이 표류기간 중 마카오 등 여러 국제항에서 경험했던 사례를 근거로 조선의 화폐 개혁을 주장하였다. 천하만국에 은전(銀錢)·금전(金錢)이 있고, 은전·금전 중에 또 대·중·소 3층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문순득의 경험담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 정약용의 수제자이자 실학자였던 이강희는 문순득의 증언을 바탕으로 유럽형 범선과 조선 선박을 비교분석한 『운곡선설(雲谷船說)』을 집필하였고, 『탐라직방설(耽羅職方說)』이라는 글을 통해 “달량부(達梁府)에 외국선박을 위한 시장을 설치하자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주장을 하였다. 이 역시 문순득이 표류기간 중 경험한 외국의 무역 상황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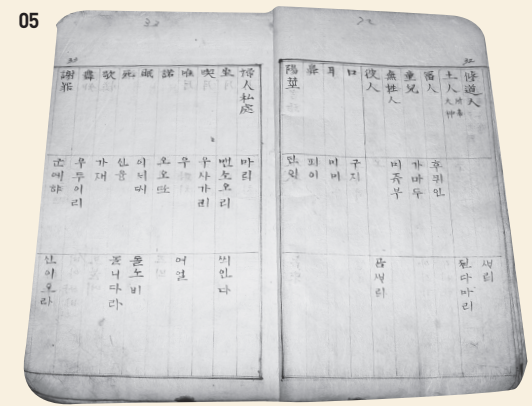
04 문순득이 필리핀에서 마카오로 이동시 탔던 유럽형 상선의 추정 모습

## ● 해양문화유산으로서 『표해시말』의 가치

문순득의 표류경험이 담긴 『표해시말』은 해양국가인 대한민국의 소중한 해양문화유산이다. 19세기 서남해 도서 해양문화 특징을 살필 수 있는 동시에 표류를 통해 습득한 동아시아 해양세계에 대한 인식이 담겨져 있는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순득의 『표해시말』이 지닌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송(필리핀)에 대한 유일한 표류기록이다. 중국이나 일본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기록들은 많지만 여송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 조선 후기 류큐에 대한 풍속과 문화가 상세하게 다뤄지고 있다. 조선 전기 사료 가운데는 류큐와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남아 있지만, 조선 후기 자료로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셋째, 선박과 언어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기록이다. 바다를 통해 여러 지역을 이동하다 보니 다양한 나라의 선박과 항해를 체험했고, 경험자나 기록자가 모두 이러한 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다른 아시아 국가에 진출한 천주교와 서구문화에 대한 내용이 간접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타 기록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다섯째, 해양문화와 관련되어 당시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항구도시와 해양 네트워크에 대한 단서가 수록되어 있다. 국제항과 바닷길을 통해 습득한 동아시아 해양세계에 대한 인식과 체험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문순득의 『표해시말』은 다른 어떤 표류기록보다 국제적이고, 해양문화적인 사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문순득이라는 인물은 섬사람들의 강한 생명력과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섬이 지니는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든다. 평소 배를 타고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직업이었던 문순득은 힘든 표류노정을 모두 견뎌냈고, 고향에 돌아 온 후에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문순득의 사례는 우이도와 같은 먼 바다에 위치한 서남해의 섬이 폐쇄적이던 조선 사회에



05 『표해시말』에 수록된 각국의 언어비교표

서 유일하게 외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그것을 당대 최고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특수한 공간적 기능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외국학자들 가운데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몰락한 원인을 근대적인 해양인식의 부재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바다를 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19세기 초에 근대적인 해양인식이 조선의 지식인 사회에서 싹트기 시작하였음을 문순득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아쉽게도 문순득의 경험과 그것을 수용하려는 실학자들의 노력은 당대 국가의 정책으로 발전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왜 한국의 섬과 바다가 지닌 해양문화적 가치를 올바르게 재인식해야 하는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IN**

### 필자 소개

목포대학교에서 『조선후기 문순득의 표류와 세계인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에서 한국의 섬과 해양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문순득 표류연구』, 『신안이야기-바다로 간 천사 섬이 되다』 등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국가기록원 민간기록조사위원, 전라남도 기록물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